

출판시장에 추리소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

독서 중산층 중심으로 추리소설 마니아층 급부상해

요즘 추리소설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월 황금가지에서 펴낸 <셜록 홈즈 전집>을 신호탄으로 3월에는 까치글방과 대동출판사가 가세하고, 4월 말에는 시간과공간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더욱이 흥미로운 건 시리즈물들이 '홈즈'와 '뤼팽'의 대결구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질세라 북하우스는 《셜록 홈즈 걸작선》을 출간했고, 하늘연못 또한 추리소설의 개척자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들을 한권에 묶어 《우울과 몽상》을 펴냈다.

지적 두뇌게임 즐기는 독자층 자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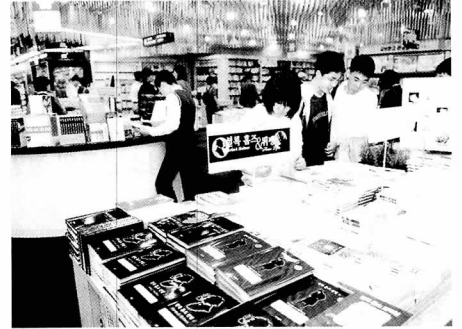
최근의 추리소설붐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서점들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북하우스의 《셜록 홈즈 걸작선》(영풍문고 외국소설 부문 3위), 황금가지의 <셜록 홈즈 전집 5>(교보문고 외국소설 부문 6위) 등이 순위에 올라 있고, 시공사의 《뒤마클럽》, 황금가지의 <셜록 홈즈 전집 1>이 각각 리브로 소설부문 6위와 10위에, 역시 황금가지의 <셜록 홈즈 전집 1~4>와 하늘연못의 《우울과 몽상》이 YES 24 문학부문에서 각각 8위와 12위를 차지했다. 고전소설 붐이 점차 현대 추리소설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갑자기 추리소설인가. 마치 출판사들이 사전협의라도 한 것처럼 추리소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니 의아하기까지 하다. 대부분의 출판기획자들도 이런 현상에 대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각 출판사에서 지난해부터 개별적으로 추리소설 출간을 추진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출간시기가 맞물렸다는 '오비이락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때이닌 추리열풍에 대해 황금가지 장은수 편집장은 “우리 사회의 독서 중산층들은 너무 무겁지 않고 적당히 지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고급한 읽을거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마땅한 문학텍스트가 없었다. 최근의 추리소설붐은 문학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읽을거리를 찾는 그들의 구미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고 설명한다.

또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30~40대가 추리소설의 주요 독자층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시절 문고판이나 다이제스트판으로 재편집된 추리소설을 읽었던, 뫼비우스와 홈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중년층이 추리붐을 일으킨 주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공간사 편집부 김소정씨는 “추리문학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다. 중·고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독자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굳이 독자층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문학평론가 김성곤 교수는 추리소설 붐이라는 이례적인 사회현상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문화연구가 활발해지면서 20세기 초중반에 소외됐던 대중적인 문학작품에 대한 재해석이 활발하다. 추리소설도 SF, 판타지 소설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모호해지면서 탐정과 범인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유쾌한 반란, 하나의 사건을 중층적으로 읽어내는 추리기법이 제도권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김교수는 또 1980년대를 시위와 쟁의현장에서 보내야 했던 386세대들이 그동안 향유하지 못한 풍요로운



한 대형서점의 추리소설 코너.

지적 쾌락에 대한 보상심리로 추리소설을 찾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독자적인 출판장르로 자리잡아야

추리소설붐에서 또 한가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퍼블릭 도메인의 영향이다. 홈즈나 뫼비우스 시리즈는 저작권이 소멸돼 마음만 먹으면 어떤 출판사라도 책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소모적인 중복출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하우스 편집부 이승희씨는 “질 좋은 원전해석, 천편일률적인 판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편집을 통해 오히려 고전 추리소설들이 기존의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수준 높은 문학텍스트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반영하듯 각 출판사들이 펴내는 추리소설들은 대부분 고급스런 재질의 하드커버로 포장돼 있다. 이는 추리소설을 찾는 독자들이 단지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책들을 장서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제 추리소설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이 다가온다. 이에 발맞춰 이미 추리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출판사들은 시리즈 완간과 신작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샘터가 6월부터 청소년·여성독자를 겨냥한 <뤼팽> 시리즈를 출간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래저래 출판가는 추리열풍으로 뜨겁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붐'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샘터의 임왕준 기획실장은 “붐을 이루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꾸준히 독자층을 형성해 독자적인 문학장르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박옥순 기자